

문 1.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 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 ① 이마를 짚어 보니 열이 있었다.
- ②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
- ③ 그들은 속을 짚어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

정답 ④

밑줄 친 '짚다'는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의 뜻으로 쓰였다. 제시된 '짚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④의 '짚다'이다.

- ① 손으로 이마나 머리 따위를 가볍게 눌러 대다.
- ② 바닥이나 벽,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다.
- ③ 상황을 헤아려 어떠한 것으로 짐작하다.

문 2.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그는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시켰다.
- ②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
- ③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 ④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킨다.

정답 ②

②는 문맥상 내가 아이를 입원하게 한 것이므로 사동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동사 '입원시키다'가 적절히 사용되었다.

- ① 문맥상 주어인 그가 박 군을 소개한 것이므로 사동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개했다'로 적어야 한다.
- ③ 문맥상 내가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므로 사동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설득한다'로 적어야 한다.
- ④ 문맥상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사동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해소한다'로 적어야 한다.

문 3. 밑줄 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관리가 본디부터 간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간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대체로 직책은 하찮은데도 재주가 넘치면 간악하게 되며, 지위는 낮은데도 아는 것이 많으면 간악하게 되며,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이 또한 정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형벌에 원칙이 없고 염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간악하게 된다.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대체로 이러하다.

- ① 노력은 적게 들이고 성과를 빨리 얻는다.

- ②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 ③ 자신은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감독자가 자주 교체된다.
- ④ 자신의 세력이 밑에서 강한 반면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다.

정답 ②

②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①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게 되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간악하게 되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되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연 산 청운사
낮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 박목월, 「청노루」 -

- ①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이다.
- ②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오고 있다.
- ④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재가 배열되고 있다.

정답 ④

이 시에서 시간적 흐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① '청운사'와 '자하산'은 현실의 갈등으로부터 초탈한 이상향으로 상상적 공간이다.
- ②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자연적 대상을 묘사하면서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 가고 있다.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청운사의 낮은 기와집과 봄눈이 녹는 자하산을 바라보다가 점차 시선을 이동시켜, 골짜기마다 나무에 속잎이 피어나는 모습과 산봉우리에 있는 구름을 바라본다.

*참고자료 - 박목월의 '자작시 해설' 중에서

이 작품이 발표되자 '청노루'가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었다. 물론 푸른 빛 노루는 없다. 노루라면 누르스름하고 꺼묵한 털빛을 가진 동물이지만, 나는 그 누르스름하고 꺼묵한, 다시 말하자면 동물적인 빛깔에 푸른 빛을 주어서 정신화된 노루를 상상했던 것이다.

참으로 오리목 속잎이 피는 계절이 되면 노루도 '서정적인 동물'이 될 것만 같았다. 또 청운사나 자하산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어느 해설서에 '경주 지방에 있는 산 이름'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한 것을 보았지만 이것은 해설자가 어림잡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기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내가 창작한 산명이다.

나는 그 무렵에 나대로의 지도를 가졌다. 그 어둠과 불안한 일제 말기에 나는 푸근히 은신할 수 있는 어수룩한 천지가 그리웠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은 어디나 일본 치하의 불안하고 바라진 땅뿐이었다. 강원도를 혹은 태백산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내가 은신할 수 있는 한치의 땅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 혼자의 깊숙한 산과 냇물과 호수와 봉우리와 절이 있는 마음의 자연 지도를 그려 보게 되었다.

문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 궤미)이다. 처음 황제(黃帝) 때에 뽑혀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相工]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했다. "산야(山野)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 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만물을 조화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놓아 때를 굽고 빗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왕자(王者)는 사람을 그릇[器]으로 만듭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銅)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 ① ㉠은 ㉢의 결정에 의해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 ② ㉡은 ㉠의 단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 ③ ㉢은 ㉡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였다.
- ④ ㉣은 ㉢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정답 ③

㉡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한 이는 황제(㉢)이다.

- ① 글의 마지막 부분인 '원컨대 폐하께서는 ~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산야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 만하지 못하오나, ~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은 왕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든다는 말을 본받아 공방(㉠)이 세상에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문 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생명체들은 본성적으로 감각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겨나지 않는 반면 일부의 경우에는 생겨난다. 그리고 그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은 기억 능력이 없는 것들보다 분별력과 학습력이 더 뛰어난데, 그중 소리를 듣는 능력이 없는 것들은 분별은 하지만 배움을 얻지는 못하고, 기억에 덧붙여 청각 능력이 있는 것들은 배움을 얻는다.

(나) 앞에서 말했듯이,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

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기술자는 유경험자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이론적인 지식들은 실천적인 것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떤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임이 분명하다.

(다)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요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가의 삶을 위해서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인식은 유용한 쓰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종류의 모든 발견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 여가의 즐거움이나 필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학문들이 발견되었으니, 그 일은 사람들이 여가를 누렸던 여러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집트 지역에서 수학적인 기술들이 맨 처음 자리 잡았으니, 그곳에서는 제사장(祭司長) 가문이 여가의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라)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 까닭은 같은 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억은 하나의 경험 능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은 학문적인 인식이나 기술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학문적인 인식과 기술은 경험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 까닭은 폴로스가 말하듯 경험은 기술을 만들어 내지만, 무경험은 우연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기술은, 경험을 통해 안에 쌓인 여러 관념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에 대해 하나의 일반적인 관념이 생겨날 때 생긴다.

- ① (가) - (다) - (나) - (라)
- ② (가) - (다) - (라) - (나)
- ③ (가) - (라) - (나) - (다)
- ④ (가) - (라) - (다) - (나)

정답 ④

(다)의 시작 부분인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를 고려하면, (다)의 앞에는 기술의 발견에 대한 내용이 와야 한다. 그리고 (라)의 마지막에서 기술은 일반적인 관념이 생겨날 때 생긴다고 했으므로 (라)가 먼저 나와야 한다. 다음으로 (나)는 '앞에서 말했듯이'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론적인 지식들은 실천적인 것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는 (다)에서 나타나는 내용으므로 (나)는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 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되새김 동물인 무스(moose)의 경우,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무스의 위는 네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에서 나뭇잎,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남서부의 사막 지대에 사는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위로 눈만 뺄때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있으면 따뜻한

모래가 도마뱀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 곤충이 지나가면 도마뱀이 모래에서 나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이다. 반대로 갈퀴발도마뱀의 포식자인 뱀이 다가오면, 그 도마뱀은 사냥할 기운을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경험을 되살려 호흡과 심장 박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죽은 시늉을 한다.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의 손실을 줄이고 사막 짐승들의 끊임없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 ① 무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 ② 무스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 ③ 갈퀴발도마뱀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
- ④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②

무스가 식물을 가려서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①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미국 남서부의 사막 지대에 사는 갈퀴발도마뱀은 ~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마지막 문장 '갈퀴발도마뱀은 ~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8. (가)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문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은 큰비 오고 부엌에 불을 때면 천장은 굴뚝이요 흙 떨어진 윗대궁기 바람은 살 쏜 듯이 들이불고 틀만 남은 헌 문짝 멍석으로 창과 문을 막고 방에 반듯 드러누워 가만히 바라보면 천장은 하늘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요, 이십팔수(二十八宿)를 세어본다.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 제, 철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르는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에 잣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나) 한 달에 아홉 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누공(顔瓢屨空)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
봄날이 길고 길어 소쩍새가 재촉커늘
동쪽 집에 따비 얻고 서쪽 집에 호미 얻어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붙었거늘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윗대궁기: 나뭇가지 등으로 엮어 흙을 바른 벽에 생긴 구멍

안표누공(顔瓢屨空): 공자(孔子)의 제자 안회(顔回)의 표주박이 자주 빔

원헌(原憲): 공자의 제자

- ①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의 리듬이 규칙적이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다.

④ (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답 ①

(가)는 작자 미상의 「흥부전」이고, (나)는 정현의 가사 「탄궁가」이다. (가)는 산문 형식이므로 규칙적인 리듬이 없고, (나)는 가사이므로 4음보의 규칙적인 리듬을 취하고 있다.

② (나)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는 허름한 집의 모습을 '방 안은 큰비 오고', '천장은 굴뚝이요', '바람은 살 쏜 듯이 들이불고', '천장은 하늘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요,'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탄궁가」는 가난한 삶의 처지를 운명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나는 작품이지만 (나)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의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 제'와 (나)의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로 보아 (가)와 (나) 모두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 9. 다음 시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을 사람들과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서 옳지못 못하면
마소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 ① 鄉閭有禮 ② 相扶相助
- ③ 兄友弟恭 ④ 子弟有學

정답 ①

제시된 작품은 정철이 지은 연시조 「훈민가(訓民歌)」 중, 제8수로 올바른 행동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향려유례(鄉閭有禮)'이다.

- ① 향려유례(鄉閭有禮): 마을에는 예절이 있어야 함.
- ② 상부상조(相扶相助): 서로서로 도움.
- ③ 형우제공(兄友弟恭):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형제간에 서로 우애 깊게 지냄을 이르는 말.
- ④ 자제유학(子弟有學): 자녀들에게 학문을 권장함.

문 10. ㉠, ㉡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근무 여건이 개선(㉠)되자 업무 효율이 크게 올랐다.
- 금융 당국은 새로운 통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 | | |
|------|----|
| ㉠ | ㉡ |
| ① 改善 | 通貨 |
| ② 改選 | 通話 |
| ③ 改善 | 通話 |
| ④ 改選 | 通貨 |

정답 ①

㉠ 개선(改善 고칠 개, 착할 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

개선(改選 고칠 개, 가릴 선): 의원이나 임원 등이 사퇴하거나 그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새로 선출함.

㉡ 통화(通貨 통할 통, 재물 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

으로서 기능하는 화폐. 본위 화폐, 은행권, 보조 화폐, 정부 지폐, 예금 통화 따위가 있다.

통화(通話 통할 통, 말씀 화): 전화로 말을 주고받음.

문 11.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① 영희: 줄 서기의 경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더 높아.

② 철수: 특히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야. 이런 경우, 동조 압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③ 갑순: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갑돌: 아침에 수많은 정류장 중 어디에서 공학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는데 스튜어디스 차림의 여성이 향하는 정류장 쪽으로 따라갔었어. 이 경우, 그 스튜어디스 복장이 신뢰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네.

정답 ③

두 번째 문단에서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부족,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의 정도, 집단 구성원의 수, 집단의 결속력,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신뢰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개인의 신념은 언급되지 않았다.

①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집단이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으므로 줄 서기의 경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동조 현상에 의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높다고 하고 있으므로 영희의 말은 적절하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그 결속

력이 강할 때, ~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는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그 집단에 항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철수의 말은 적절하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갑돌의 말은 적절하다.

문 12. 다음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 사: 동아리 보고서를 오늘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니?

학생1: 네, 선생님. 다정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교 사: 이거, 큰일이네. 오늘이 마감인데.

학생1: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다정이가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학생2: 어떡해? 다정이 때문에 우리 모두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

학생1: 아니, 뭐라고? 다정이가 보고서 작성하기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거잖아.

교 사: 자, 그만들 해. 이럴 때가 아니잖아. 어서 빨리 다정이한테 연락이나 해 봐. 지금 누구 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니야.

학생3: 제가 다정이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해 볼게요.

① 교사가 권위적인 태도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② 학생1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③ 학생2가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끼어들어 책임을 언급함으로써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④ 학생3이 본질과 관계없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정답 ③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난 이유는 보고서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2가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동아리 회장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야기의 흐름이 벗어났기 때문이다.

① 교사는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권위적인 태도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학생1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④ 학생3은 교사가 제시한 해결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본질과 관계없는 말을 언급했다고는 볼 수 없다.

문 13. 화자의 진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상 대화에서는 직접 발화보다는 간접 발화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

활하게 하기도 한다.

- ① (친한 사이에서 돈을 빌릴 때) 돈 가진 것 좀 있니?
- ② (창문을 열고 싶을 때) 애야, 방이 너무 더운 것 같구나.
- ③ (갈림길에서 방향을 물을 때)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 ④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독려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정답 ③

③은 발화 내용상 김포공항의 방향을 묻는 직접 발화에 해당하므로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① 화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있으나 발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맥락'을 고려하면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② 화자가 방이 덥다는 화자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발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창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맥락'을 고려하면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화자인 선생님이 반 학생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칭찬을 하고 있으나 발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제를 잘 해오라는 독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맥락'을 고려하면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문 14.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줄지에 부도를 맞았더니 참 안됐어.
그렇게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
- ②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지금 네가 본 것은 실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 ③ 저 집은 부부 간에 금실이 좋아.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얼마간을 보태 주셨어.
- ④ 저 사람은 아무래도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지난번 해일이 밀어닥칠 때 집채만 한 파도가 해변을 덮쳤다.

정답 ③

부부 간 → 부부간: 첫 번째 문장에서 '부부간'은 '부부 사이'를 의미하는 명사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얼마간'은 '그리 많지 아니한 수량이나 정도'를 의미하는 명사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① 첫 번째 문장에서 형용사 '안되다'는 '섭섭하거나 가없어 마음이 언짢다.'의 의미를 지니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명령문에서 '되다'를 부정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안 돼'로 띄어 써야 한다.
- ② 첫 번째 문장에서 '아무것'이 주로 '아니다'와 함께 쓰여 '대단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을 의미할 때는 명사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못'이 '미치다'라는 동사 앞에 쓰여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므로 '못 미쳐'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④ 첫 번째 문장에서 '만하다'는 보조 형용사이므로 '믿을

만한'처럼 본용언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믿을만한'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두 번째 문장의 '만'은 체언 뒤에서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그리고 뒤의 '한'은 동사 '하다'가 활용한 형태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문 15.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철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 '열다'는 타동사이므로 '강제로'와 '열려고' 사이에 목적어 '문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② ○○사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지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로 고쳐야 한다.
- ③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앞의 명사구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로 고쳐 절과 절의 접속으로 바꾸어야 한다.
- ④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을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 '하되'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어미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하며'로 고쳐야 한다.

정답 ④

어떤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뒤에 덧붙이는 뜻을 나타낼 때 연결 어미로 '-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되'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어미로 쓸 수 있으며 어법상 잘못된 문장으로 볼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올바르게 수정한 문장이다.

문 16.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나)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라)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① (가): 미닫이, 줄음, 익히
- ② (나): 마개, 마감, 지붕
- ③ (다): 육손이, 집집이, 곰배팔이
- ④ (라): 꼬트머리, 바가지, 이파리

정답 ②

‘마개, 마감’은 어원을 고려하면 용언 ‘막다’의 어근 ‘막-’에 접미사 ‘-애’, ‘-암’이 붙어 명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붕’의 경우 ‘집+-웅’의 결합인데 어근 ‘집’이 명사이므로 용언의 어간이 아니며, ‘지붕’도 명사이므로 품사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없다. ‘지붕’은 (라)의 예에 해당한다.

- ①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라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미닫이’, ‘-음/ㅁ’이 붙어서 명사가 된 ‘줄음’,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익히’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③ ‘집집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고, ‘육손이, 곰배팔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한글맞춤법 제20항의 예로 볼 수 있다. ‘곰배팔이’의 ‘곰배팔’은 ‘꼬부라쳐 붙어 퍼지 못하게 된 팔. 또는 팔뚝이 없는 팔.’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 ④ ‘꼬트머리’, ‘바가지’, ‘이파리’는 어원을 고려하면 각각 ‘끝+-으머리’, ‘박+아지’, ‘잎+-아리’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한글맞춤법 제20항 [붙임]규정의 예로 볼 수 있다.

문 17. 발음 기관에 따라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으로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 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ㅋ	ㅣ ㅡ	ㅏ ㅑ
ㄷ ㅌ	ㄴ ㄹ	ㅓ ㅕ
ㅁ ㅂ	ㅅ ㅆ	ㅗ ㅛ
ㅈ ㅊ	ㅇ ㅎ	ㅜ ㅠ

- 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ㅅ’은 ‘ㅈㅊ’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 ② ‘ㅁㅂ’ 칸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다.
- ③ ‘ㄷㅌ’과 ‘ㄴㄹ’ 칸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것이다.
- ④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ㅇ’과 ‘ㅎ’은 구별되었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이 중에서 ‘ㅎ’은 ‘ㄱㅋ’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정답 ②

‘ㅁ’은 조음 위치에 따르면 ‘입술소리(양순음)’, 조음 방법에 따르면 ‘비음’에 속하고, ‘ㅂ’은 조음 위치에 따르면 ‘혀끝소리(설단음)’, 조음 방법에 따르면 ‘마찰음’에 속하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성질의 소리라고 볼 수 없다.

- ① 훈민정음 초성의 제자 원리는 상형과 가획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별할 수 있는데, 치음(齒音)은 기본자 ‘ㅅ’, 가획자 ‘ㅈ, ㅊ’, 이체자 ‘ㅆ’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ㅅ’은 ‘ㅈ, ㅊ’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 ③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따르면 설음(舌音)은 기본자 ‘ㄴ’, 가획자 ‘ㄷ, ㄹ’, 이체자 ‘ㄹ’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자 순서를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ㄷ, ㄹ’과 ‘ㄴ, ㄹ’을 분리한 것은 현대국어에서 ‘ㄷ, ㄹ’은 조음 방법에

따르면 ‘안울림소리’에 속하고 ‘ㄴ, ㄹ’은 ‘울림소리’에 속하므로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④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따른 초성 체계에 따르면 아음(牙音)은 기본자 ‘ㄱ’, 가획자 ‘ㅋ’, 이체자 ‘ㅇ’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음(喉音)은 기본자 ‘ㅇ’, 가획자 ‘ㅎ, ㅎ’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따른다면 ‘ㅇ’은 ‘ㅇ’과 구별하여 ‘ㄱ ㅋ’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문 18.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꿈이 아니었던가 하며 소스라쳐 깨어 눈을 떠보니 머리맡 창에 벌이 뽕뽕히 비친 것이 어느덧 저녁때가 된 것 같다. 벌써 새로 세시가 넘었다. 아침 먹고 나오는 길로 따뜻한 데 누웠으려니까 잠이 폭폭 왔던 것이다. 어쨌든 머리를 쳐드니, 인제는 거뜬하고 몸도 풀린 것 같다.

“네 처두 묵으라고 하였다만 모레는 너두 들를 테냐? 들르면 무얼 하느냐마는.....”

조부의 못마땅해하는, 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 보려고 짓궂이 비꼬는 강강한 어투가 또 들린다.

덕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수달피 깃을 댄 검정 외투를 입은 홀쭉한 뒷모양이 돌을 격하여 뒷마루 앞에 보이고 조부는 창을 열고 내다보고 앉았다. 덕기는 일어서려다가 조부가 문을 닫은 뒤에 나가리라 하고 주저앉았다.

“저야 오지요마는 덕기는 불드실 게 무엇 있습니까. 공부하는 애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날짜를 대서 하루 바빠 보내야지요.....”

이것은 부친의 소리다. 부친은 가냘프고 신경질적인 체격 보아서는 목소리라든지 느리게 하는 어조가 펍 땀판인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정답 ①

‘부친’, ‘조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요 인물인 ‘덕기’가 시점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①은 적절하다.

- ②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찾아 볼 수 없다.
- ③ 서술자가 소설에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편집자적 논평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공간적 배경이 바뀌지 않았고 서술자가 달라지지도 않았다.

문 19. 다음 조건을 모두 참조하여 쓴 글은?

- 대구(對句)의 기법을 사용할 것
○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할 것

- ① 낙엽: 낙엽은 항상 패배한다.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계절의 객석에 슬픔과 추위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패배가 없더라면, 어떻게 봄의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
- ② 비: 프랑스어로 '비가 내린다'는 한 단어라고 한다. 내리는 것은 비의 숙명인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강충강충 뛴다. 자연은 모두 한 단어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닮는다면 어떨까.
- ③ 하늘: 하늘은 언젠가 자기 얼굴이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자신을 비춰줄 만큼 큰 거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소녀를 발견했다. 포근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동자를 하늘은 바라보았다. 거기에 자신이 있었다.
- ④ 새: 높이 나는 새는 낮게 나는 새를 놀려 댔다. "어째서 그대는 멀리 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가? 기껏 날개가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러자 낮게 나는 새가 대답했다.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를 바라보고,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네."

정답 ④

'대구'는 비슷한 구조의 어구나 어절을 짝 지은 표현법을 말하고, '우의적 표현'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높이 나는 새'와 '낮게 나는 새'의 대화를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였고,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를 바라보고,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네.'에서 비슷한 어조의 글귀를 짝지음으로써 대구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 ① 삶에 대한 통찰을 '낙엽'이라는 대상을 통해 우의적으로 표현하였으나, 대구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②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강충강충 뛴다.'를 통해 대구의 기법을 사용했으나 우의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하늘'을 대상으로 우의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삶에 대한 통찰을 나타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구의 기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문 20.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소설 읽기와 쓰기에 있어 사적 생활은 필수적인 까닭이다. 어쩌면 사적 생산과 소비 형태 탓에 사생활은 소설이라는 장르의 태동 때부터 소설의 중심 주제였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사적 경험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탐색해야 할 필요 탓에 소설이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사적 공간은 개인,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은밀한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 구현되도록 도왔다.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고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존재 방식과 글쓰기 행태에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전의 지배적 문학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과는

달리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 또한 낭독을 이상으로 삼지도 않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다. 소설 장르는 여럿이 함께 모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청중 개념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는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와는 달리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가치를 나누는 일이 점차 불가능해졌다. 혼자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사적 생활에 상당한 의미를 두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응되어 나타난 것이 사적인 글쓰기였다.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이야기꾼, 음유 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그것을 쓸 때의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그러나 글쓰기, 그중에도 특히 인쇄에 의해 복제된 글쓰기는 작가에게서 떨어져 나와 결국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율적 담론을 창조하게 되었다.

- ①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요구하였다.
- ③ 소설은 사적 공간에서의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기에 출현하였다.
- ④ 희곡작가는 낭독을 통해 청중들과 교류하며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자 하였다.

정답 ①

3문단에서 사적인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으나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1문단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 사람들의 존재 방식과 글쓰기 행태에 변화를 요구하였다.'에서 찾을 수 있다.
- ③ 1문단에서 첫 문장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를 비롯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2문단을 통해 이전의 지배적 문학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은 낭독하는 전통이 있었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였으며,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에서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가치를 나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